

# 경기 침체와 수입 증가로 장기 불황

□ 취재/김종준 기자

## 1. '97육계업의 실상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수입개방 등으로 육계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다. 계속되는 기업들의 부도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었고 소

비지수가 '90년 초반수준으로 되돌아 갔는가 하면, 수입개방 이후 많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수입을 하여 수입물량이 10월 말 현재 14천톤을 넘어섰다. 특히 계열업체에서도 국내 육계가격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고 경영상의 이점을 이유로 부분육을 집중 수입하기도 하였다. 유해균 발표 이후 직·간접적으로 소비위축을 감수하여야 했고 생산물을 유통하는데 유통 수수료 상승과 예전에 없던 이중시세가 형성되어 결국 농가출하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육계 생산비는 낮아졌으나 실제로는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환차손의 이유를 들어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생산비 절감은 원점에서 맴도는 결과를 보였다.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선을 회복하지 못하여 몇 번에 거쳐 종란과 병아리를 폐기 처분했지만 인위적인 생산조절은 한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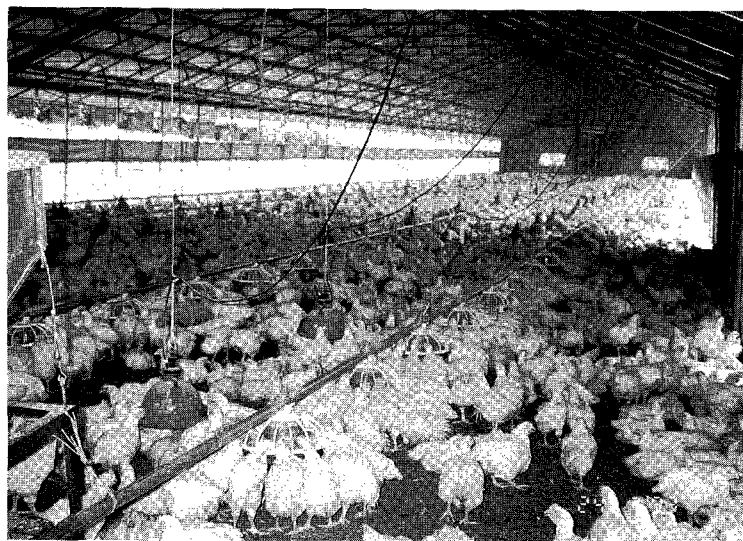


표1. '97년 육계가격, 병아리가격, 사료가격 및 육용종계 입식현황

항목 월	육계가격 (원/kg)		병아리 가격(수) '97년	육계사료공장도가격 (원/kg)		PS육용종계 (천수)	
	'96년	'97년		전기	후기	'95년	'96년
1	1,323	1,342	395	299	301	185	240
2	1,776	1,429	520	297	295	182	445
3	1,871	1,258	299	295	292	402	494
4	1,567	1,130	219	299	289	363	374
5	1,100	913	174	296	287	369	325
6	970	870	103	300	284	323	343
7	1,048	1,156	162	302	291	327	393
8	1,077	1,065	270	305	295	453	493
9	610	970	395	309	297	506	285
10	774	1,255	265			380	367
11	810	914	208			283	229
12	887					241	194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로 육계가격은 생산비선에서 묶여 고전을 거듭하였다.

## 2. 소비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

G.P.S 물량이 '94년에 비해 '95년과 '96년에 계속 증가하였고, P.S 입식 현황도 '96년에 3.9%로 증가하였다. 금년 연초 2개월간 병아리 가격이 안정된 후 5개월간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100원 이내의 시세가 장기화 되어 종계 부화업계에서는 4월중 두차례에 걸쳐 복이전 병아리 생산 감축을 위해 병아리 260만수, 종란 180만개를 폐기 및 식란 처분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7월 들어 병아리 가격이 회복할 기미가 없자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1주간 전체 병아리 생산량의 50%를 폐기 처분하였다.

병아리와 종란을 폐기 처분한 영향으로 육계사료 생산은 9월까지 1,061,378톤으로 '96년 동월까지 물량에 비해 2% 줄었으나 '97년의 육용실용계생산잠재력은 예년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올 9월까지 소비지수가 107로 '96년 141에 비하여 34포인트가 떨어진 점을 볼 때 사회 전반적인 소비가 되지 않았는데 생산량은 예년과 비슷하여 수급조절에 차질이 있었다. 더욱이 수입물

량이 전체 생산량의 5%에 이르고 있어 육계가격 1,200원선 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다.

## 3. 사료가격의 변동

축협사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료업체들이 1월 30일 이후 평균 3.6%의 사료가격을 인하하였다. 국제 곡물 원료가격의 인하에 발 맞추어 시행한 사료가격 인하는 육계 생산비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배합사료 부가 가치세영세율 적용을 7월 1일부터 사육농가 규모에 관계없이 시행함으로써 사료가격을 5~6%를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8월 이후 환율인상과 관련하여 사료원료 구입가격이 상승하여 양계부문의 사료가격이 평균 1.8%로 인상 조치된 이후로 계속 사료가격이 상승하였다.

예를들어 9월 현재 육계사료 공장도 가격이 전기 308.55원/kg, 후기 297.32원/kg으로 지난 6월 이후로 11원/kg이 상승되었다. 800원대를 고수하던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11월 현재 1,000원대를 상회하여 사료부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4. 육계가격 급변동

'97년은 '96년에 비해 어느 때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짧고 가격 변동이 잦았다. 이런 현상은 상반기 보다는 후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후반기에는 사회적 경기 불황이 가속화 되었고, 수입이 전면 개방 이후 수입물량 유동이 많아졌고 비축물량 방출이 단시일에 있었다.

더구나 유해성 병원균의 보도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하여 상승 되었던 닭가격이 갑자기 다시 하락하는 변화무쌍한 가격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유통상 여건 변화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폭락과 폭등이 계속되는 것은 생산량 증감 보다는 육계값이 약세를 보일 때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큰 폭의 할인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출하를 감행하는가 하면 반대로 상승세를 나타낼 때에는 출하를 지연시킨 결과였는데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97년 10월까지 육계가격 변동기간 추이를 보면 가격 유지 기간이 가장 짧은 1일인 경우가 25번 있었고 가장 긴 기간은 18일로 한 번 있었다. 평균적으로 가격 유지 기간은 2~3일로 단기간 동안 가격변동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가격변동폭은 100원으로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올 해는 예전에 비해 200원 이상 변동이 쉽게 이루지지 않았다.

#### 5. 닭고기 가격 이중시세

'96년까지 닭고기 가격은 유통상인이 당일 물량을 유통한 다음 시장 상황을 파악 후 그 다음날 공시하는 형태를 유지하였지만 '97년에 들어서면서 육계 생산자들이 유통알선업자들에게 의존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유통알선업자들의 취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유통알선업자들의 모임인 유통협의회에서 당일 시세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를 시장가격에 도입하였다. 시세가 상승시 기에는 유통협의회 결정가격이 지켜졌지만 시세 하락 조짐

표2. 수입실적과 관세변동 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99	2000	비 고
				상반기	10월말까지				
수입할당량 (자육, 톤)	-	7,700	10,400	6,467	8,277	1. '97. 7. 1부터 완전 개방 2. 10월까지 수입은 CY도착 물량기준			
관세(%)	20	20	20	20	30.5	28.7	27.0	25.5	2004년부터 20

이 보이거나 하락시에는 고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다르게 거래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97년의 육계 시장가격 변동이 잦고 생산비선에서 지속되는 육계가격 때문에 가격이 조금 변화하여도 물량이 많은 농가는 자체 물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라도 판매를 알선업자에게 부탁하게 된다. 알선업자들은 구매 상인과 협상을 통하여 판매를 하게 되고 이 시세는 다른 지역의 농장과 거래시에도 적용하게 되어 이중시세가 생겨나게 되었다. 육계가격 하락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중시세는 시장가격 보다 100원~200원 싸게 거래되는데 주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은 대닭 출하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 6. 유통수수료 인상

농가에서 닭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육계 유통알선업자에게 출하를 의뢰하여 닭을 판매하는데 이때 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수료가 기준 10원에서 2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유통 수수료는 올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인상되어 거래되기 시작되었고 8월에

들어서면서 본격화 되었다. 판로에 어려움이 많은 농가들은 시장 흐름에 정보가 빠른 유통 알선업자들을 이용하게 되었고 유통알선업자를 통한 판매가 보편화 되면서 유통알선업자의 취급 물량이 많아지게 되었다. 육계 경기 위축과 관련하여 육계 출하 후 결제가 지연 되고 결제가 어음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를 전담했던 알선업자들은 육계 판매 농가가 육계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매상인이 준 어음 일자보다도 빠르게 일부를 현금으로 농장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농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물량을 상인에게 판매하여야 하는데 닭가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구매하는 상인이 없어 문제가 되고 설령 판매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닭 구매상인이 부도를 낼 경우에는 이를 유통업체가 감당해야 하므로 알선업자에게는 위험 부담이 크게 되었고 이때 유통 수수료 인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계열업체와 거래시에는 농가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지 못하고 10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제 기일은 60일로 보편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 7. 계열업체 부도

영육농산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동방에 경영권을 넘겨 주었고 풀그린 식품도 이와 같은 원인으로 부도를 내었다. 국내 경기 위축과 소비가 격감하여 육계가격 유지가 어려워 계열주체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닭고기를 투매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채산성을 더욱 나쁘게 하였다.

영육농산은 인수 작업으로 그 피해가 적었다하더라도 풀그린식품의 부도는 거래하는 유통업체와 도매상인의 피해가 확산되었고 이 피해는 결국 계약 농가에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 계열업체는 계약농가와 계약 조건을 수정하여 수직적 계열화에서 탈피하여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계열업체의 자금 사정이 '97년에 와서 더욱 악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8. 전면 수입개방 이후 수입량 급속 증가

'97년 6월까지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은 6,467톤이 수입되었다. 7월 1일 전면 수입개

방을 앞두고 육계가격이 1,200 원대를 넘지 않으면 수입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7월 한달 동안에는 그 예측이 적중하여 1,094톤이 수입되어 수입개방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8월에 1,917톤, 9월에 1,908톤이 수입되었고 10월에는 3,358톤이 수입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4,247톤, 중국 3,409톤, 태국 487톤, 카나다 113톤, 프랑스 21톤 순이었다. 상기할 것은 냉동 닭고기 만이 수입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냉장 닭고기 수입이 131톤이 있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도 대폭 증가하여 11월 현재 53개 업체가 수입에 참여하였다. 이들 업체에는 계열업체와 외식업체가 다수 있는데 수입 품목은 닭다리와 날개 등 부분육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수입 시기는 육계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을 때는 물론이고 육계가격이 하락세에 있을 때에도 자체 물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 9. 위해성 병원균 발견 보도

9월 26일 미국 네브래스카

산 수입 쇠고기에서 독성이 강한 병원균 대장균 O-157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은 후 수입 쇠고기 소비가 격감하였고 이는 축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게 되었다.

연이어 10월 20일 이후 미국 닭고기 70~90%가 캠필로 백터균에 오염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국내 일간지를 통하여 전해지자 수입 닭고기 소비는 격감하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국산 닭고기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 10. 소비행태 변화

통닭 위주의 소비행태에서 부분육 쪽으로 소비가 증가하였다. 닭다리 닭날개 등 소비는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소비되었는데 이 같은 양상은 간단하고 저렴한 가격, 먹기 편하게 요리를 공급하는 패스트 푸드점을 신세대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혔졌다. 소비행태 변화로 말미암아 관련 업체들은 부분육 생산에 원가절감 차원과 고정 거래처를 늘려간다는 취지에서 수입육으로 소비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발골육은 닭갈비 체인점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

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육을 사용하고 있다. 발골육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포장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발골육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 11. '98년 육계산업 전망

'97년 육계업 불황은 경기침체와 관련된 소비감소로 볼 수 있다. 소비가 되지 않고 닭고기 생산량은 예년과 차이가 없었으나 육계가격은 생산비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7월 1일 이후 전면 수입 개방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육계시장의 5%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육계가격에 상관없이 수입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내년에 관세가 28.7%로 낮아지면 수입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현재 환율이 1,000원선에서 하락되지 않고 있어 외국원료 의존율이 높은 부문에서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98년에 영향을 미칠 PS 입식물량을 보면 육계가격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환율증가로 생산비는 상승되고, 이중시세와 같은 유통구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육계가격은 고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양계